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분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성태'

#### 성태를 길러라 ①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도력을 얻지 못합니다. 어제 얘기했죠. 어젯밤에 얘기한 것. 망심이 없어서 정도(正道)를 써야 된다. 망심이 있어서 정도를 쓰면 그 정도는 사도(邪道)가 돼 버려. 그와 마찬가지로 정정(正定), 바른 정자 정할 정자. 정(定)자를 우리말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자를 가라앉는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앉은 자리다. 정할 정자거든요. 이걸 바른 정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정정, 바로 가라앉은 것, 정정을 얻지 못하면 바로 찾던 마음이 아니고 바른 마음, 아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그러면 차분하게 가라앉을래야 가라앉을 것이 없어요. 그 마음에 번뇌 망상을 일으키지 안 해. 번뇌 망상,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정정입니다.

언제라도 정정이라. 그런데 아난 존자가 그 자리에 안 왔다 말이죠. 안 왔으니까 그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지금 어디에 있는고' 하고 한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죠. 정정에서 한 마음을 일으켰어요. 일으켜 놓고 보니 아난 존자가 간난이 집에서 아단을 만났다 말이죠. 이걸 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성태를 기른다 하는 것은 정정이 되자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쓴 성태, 거룩한 태. 이것은 정정이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정이 되는 그 방법은 무엇이나. 눈하고 타협을 하지 안 해. 귀하고 타협을 하지 안 해. 입하고 혀바닥하고 타협을 하지 안 해. 눈으로 보긴 봐. 보지만은 그대로 볼 뿐이여. 귀로 듣긴 들어. 듣지만은 그대로 들을 뿐이여. 거기서 시시비비를 따

다.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해야 된다는 불견을 일으켜. 저래해야 된다는 법견을 일으켜. 이해놓으니 허공은 하나 같은 허공인데 그만 거기에 시켜면 구름이 꼭 끼어서 허공이 안 돼.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하니 본래 여러분들은 정정자입니다. 바로 거룩한 태의 자리라. 본래로부터. 원래 해맑은 그 자리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해맑은 그 자리기 때문에 이 자재성이 없는 이 몸품이를 끌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뭘 보기도 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뭘 듣기도 하고 혀바닥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하니 눈 자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걸 여러분들이 잘 아서, 거울의 역할밖에 안 하거든. 귀 자체가 듣는 것이 아니라 걸 여러분들이 아서, 마이크 역할밖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이크 자체는 모릅니다. 뭘 모릅니다.

“ 우리는 술한 번뇌 망상의 구름을 일으키고 있다. 분별심으로 허공 될 수 없어 '정정', '바른 가라앉음'은 눈·귀·혀와 타협 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게한다. ”

그와 마찬가지로. 아난 존자가 그 자리에 안 왔다 말이죠. 안 왔으니까 그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지금 어디에 있는고' 하고 한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죠. 정정에서 한 마음을 일으켰어요. 일으켜 놓고 보니 아난 존자가 간난이 집에서 아단을 만났다 말이죠. 이걸 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성태를 기른다 하는 것은 정정이 되자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쓴 성태, 거룩한 태. 이것은 정정이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정이 되는 그 방법은 무엇이나. 눈하고 타협을 하지 안 해. 귀하고 타협을 하지 안 해. 입하고 혀바닥하고 타협을 하지 안 해. 눈으로 보긴 봐. 보지만은 그대로 볼 뿐이여. 귀로 듣긴 들어. 듣지만은 그대로 들을 뿐이여. 거기서 시시비비를 따

그러면 가라앉는다는 말이 또 붙어버리네. 가라앉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가라앉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내가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맞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근사(近似)하지만은 내 마음이 분별을 일으키지 안 해. 가라앉힐래야 가라앉힐 것이 뭐 있어요? 내 마음이 분별을 일으키지 안 해. 분별은 어디서 오느냐. 분별을 일으키면 번뇌가 나와. 가지고 싶다 버리고 싶다 번뇌가 생겨. 그러하니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 고것이 아까 말한 성태, 그 자리 그것이 바른 정자 정할 정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력을 갖다 기르려면 정정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텅 가라앉음으로써 그만 삼매정중에 들어서 한 생각을 텅 일으켜. 마음대로 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서는 아난존자가 간난이 집에 갔을 때에, 언제라도 부처님은 정정이거든요.

만약 내가 '번뇌 망상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번뇌 망상을 없애겠다는 요 마음 요것도 번뇌라요. 그러니까 번뇌 하나를 더 붙여지는 거나 한가지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부할 지어가는 데 망상이 오거든 망상 그대로 받아 버려요. 응 나 왔느냐 이 정도로 해서 관심을 더 가지지 말아요. 내가 번뇌가 일어나. 아나기 번뇌가 왔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차차차차 번뇌 망상의 당처가 빈 줄도 알 뿐 아니라, 그대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내의 성품자리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요것이 정정입니다. 그러하니 정정이 되어 도력이 인자 발돋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도력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도의 힘, 도력(道力)인데. 그런데 이거는 제이의 소색입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 극락세계에 들어 복된 생활을...

#### 11. 보위사승부모급 수호품(守護品)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망면 되게 나니 남이니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어 내가 해야만 된다고 여기거나, 둘째는 안으로 자기 마음에는 번뇌를 꼭 채웠고 밖으로는 모든 악취(惡聚)를 만날 경우, 이런 때는 내가, 내 아성(我性), 나라 하는 이것이 매우 증대(增大)해 있는 것이다. 셋째는 안팎이 이미 달라져 있는 때, 좋은 생각도 멀해지는 경우다. 그러면서 좋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남 잘하는 것을 보고 좋게 여겨지기를 버려 버려 버려 하는 맘도 없이, 그런 것 대수롭지 않다고 보는 그런 때다.

넷째는 삼업(三業)을 방자하게 한다. 입도 험하게 놀리고 몸도 함부로 허둥 행동하고 뜻도 방자하게 자져 어떤 악이든지 닥치는대로 다 하는 때. 다섯째 비록 크지 않은 작은 일이지만 마음을 잔뜩 나쁘게 먹었을 때, 여섯째 나쁜 생각이 가득하여 성숙해서 간단없이 계속하는 때. 일곱째 허물을 덮고 변호와 자기 합리화를 일삼을 때, 일상생활에서도 이리 저리 눈가림해 나가는 그런 일이 많다. 여덟째 아주 독살스럽게 무엇에든지 용감히 덤벼드는 행동, 악을 의식치도 않고 겁 없이 척척해 나가는 때. 모진 짓을 하는 때. 아홉째 부끄러움 없이 철면피로 구는 때. 범상한 사람이나 거룩한 이나 존경할 줄 모르고 손아프게 생각지 않는 때. 열째 인과율을 거부해 버리는 때.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그러저러 지나가 버리면 된다고 하는 때.

위의 잘못된 생각을 돌려 바로잡아 나가는데 또 열 가지의 좋은 일이 있다. 첫째는 밝게 인과를 보고 믿는다. 둘째, 언제나 참회하고 자신을 이겨 나간다. 셋째, 악도(惡道) 나쁜 길을 무척 겁낸다. 넷째, 자기 잘못을 숨기려 말고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고백하고 결말을 짓는다. 다섯째, 항상 이어 나가는 즉 상당하는 생각을 끊어 버린다. 여섯째, 보리심(菩提心)을 어디까지나 깨쳐 나간다. 우리가 부처를 믿어 나가고, 아뜰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알고 남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 행동하고 정진해야 된다. 일곱째, 모든 공적을 닦고, 그릇된 일, 과실을 보살한다. 여덟째, 정법(正法)을 수호한다. 우리는 진리와 대의(大義)를 지키고 복원해

나간다. 아홉째, 사방에 부처님을 생각한다. 열째 스스로의 죄성(罪性)을 항상 비워 나가기를 힘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심 참회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얘기한 경전 가운데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일까? 조석으로 권청(勸請)하고 예불(禮佛)하는 일은 사참(事懺)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이나 무량수경(無量壽經)에 의지할 참회다. 정토문(淨土門)을 설명한 경전에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관무량수경 다음은 소아미타경(小阿彌陀經), 무량수경이다. 이를 대아미타경(大阿彌陀經)이라고도 한다.

“ 지금에야 착한 일을 닦아 안락인(安樂因)을 마련하리니 죽음에 달아 없드렸을 때 날날 인연이 눈에 보인다면 아미타불 얼굴 우러르고 싶다. 부처님 본원으로 큰 생명 굽이치니 아미타불이시여! 눈물 흘리고 당신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

'지심 참회 - 반성문' 부처님 앞에 없드려 소제할 것 바라옵건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에야 착한 일을 닦아 우리 모두 함께 마음 돌려 안락인(安樂因)을 마련하리니 바로옵건데 모두 다 목숨이 끊어져 없드렸을 때, 날날 인연이 눈에 보인다면, 아미타불의 얼굴을 우러르고 싶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세존(世尊)이시여, 신비로운 빛을 손에 들고 우리한테 던져 주시니, 부처님 본원으로 크나큰 생명 굽이치는 여기 다시 태어나 목숨을 돌이켜 공손히 쳐다봅니다. 아미타불이시여, 눈물 흘리고, 마음을 떨쳐 먹고 당신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자타가 모두 함께 안택한 극락세계로

찾아들어 복된 생활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무량수경에는 참회에 관한 대목이 많다. 특히 원효대사의 무량수경요(無量壽經宗要) 가운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가 많다.

12. 보경회향문(普敬迴向文) 言普皆迴向者。從初禮拜。乃至隨順。所有功德。皆悉迴向盡法界。虛空界。一切衆生。常得安樂。如是行願。虛空界盡。衆生界盡。衆生煩惱盡。我此行願。無有窮盡。念念相續。無有間斷。身語意業。無有疲厭

이 보경회향문의 자수(字數)는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은 복잡하다. 첫째에는 수순(隨順)하고 취입(趣入)한다. 즉 모든 곳에 들어간다는 뜻이 있다. 둘째는 원령중생상득안락(願令衆生常得安樂)이다.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을 얻도록 해주어야겠다. 이러한 우리의 신(信)과 행(行)의 발원이 있다. 셋째, 염업상속(念業相續)이다. 굳은 신앙으로써 우리가 실천하는 이것이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실증이 나는 일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해 나간다. 기쁜 마음은 감사와 보은을 바탕으로 하여 우러나온다. 우리가 발심으로 중생의 고통 대신하여 지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고찰해 보면 대략 일곱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희비의락(喜悲意樂)이다.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 마음이 편이나 쾌락한 지경을 말함이다. 둘째는 수제고행(修諸苦行)이다. 모든 고행을 닦는 것. 셋째는 유혹유생(留惑潤生). 잘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파우의 유혹에 빠져 고통 받고 허덕인다. 이런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설법을 해야 되고,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발을 떼어야 된다. 그런 데에 빠져 있으면 악을 짓는 것이므로, 유혹의 원인을 없애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갖는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장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자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노폐물을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강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